

## 제주신화의 현대적 재해석을 위한 시론

양영수\*

### 目次

- I. 신화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의 의의
- II. 신화를 통해서 본 제주인의 영생욕구(永生欲求)
- III. 제주신화에 나타난 평화 모티프와 자연경배 정신
- IV. 제주신화에 나타난 제주역사의 실상들
- V. 제주신화에 대한 예술적 재구성의 가능성

### I. 신화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의 의의

신화의 세계는 상징과 은유의 세계이다. 우리 현대인들이 오랜 옛날 무지몽매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인 신화를 귀담아 들으려 하고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한 불변의 통찰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신화적인 표현의 묘미를 상징과 은유 속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징과 은유는 사실과는 다른 표현을 통하여 삶의 오묘한 진실을 깨우치게 한다는 점에서 꿈과 비슷한 데가 있다. 꿈 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각성시간중의 사실세계의 것이 아님에 분명하면서도 사실세계의 어떤 면에 대하여 암시적인,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기한, 통찰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신화는 어른들의 꿈이고 꿈은 어린이의 신화라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신화를 바라보는 가장 어리석은 태도는, 신화의 내용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백안시하는 태도이다. 역사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화에 담긴 깊은 의미를 캐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상상력의 빈약함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 부끄러움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앞을 가렸다는 구약성서 속의 기독교 (및 유태교와 이슬람교) 신화를 사실 그대로 믿을 사람은 오늘날 거의 없겠지만, 이 신화에는 인간문명의 본질로서의 지식욕과 죄악과 자기연민에 관련된 깊은 상징적 의미가 담겨있다. 아프로디테 여신의 어린 아들 에로스가 장난기로 쏘아대는 화살을 맞는 이는 맨처음 보는 이성

\* 영어교육과 교수

을 무조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리스신화의 스토리 또한 오늘날 그대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만, 이 대목은 남녀간 사랑의 불가사의함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기 때문에 아직도 수많은 예술작품의 귀중한 모티프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제주의 창세신화에서 하늘나라 천지왕과 지상세계 총맹부인의 두 아들이 저승과 이승을 갈라말는 내력담은, 인간세계의 불완전함을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천지왕의 두 아들이 꽃가꾸기 시합을 벌여 이긴 쪽이 이승을 다스리기로 약속되어 있었지만, 동생인 소별왕은 형인 대별왕이 깊은 잠에 빠져있는 동안 형의 꽃을 살짝 바꿔 치기하는 속임수를 씀으로써 형 대신 이승세계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 선조들의 이같은 신화 스토리 가운데에는 인간세상의 부도덕한 지배권력을 체념적으로 수용하는 지혜가 담겨있다고 보아진다. 생존경쟁의 패배자가 불의(不義)의 승자에게 승복해야하는 현실에서 체념보다 더한 위안의 길이 있을까.(제주의 창세신화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삶의 표출은 놀랄 만하다. 생명탄생의 축복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모티프로써 꽃을 등장시키고 있고, 심성이 선량하고 태평한 사람은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는 만고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제주의 창세신화인 것이다.)

신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다고 함은 신화에서 종교적인 의미를 제거함을 의미한다. 아득한 옛날 사람들에 의해 신화의 본래 즐거리가 만들어졌을 때에 그것은 인간이 신을 만나서 경배하고 신에게 자신의 복을 간구하는 종교적 제의(祭儀)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대개의 경우 이러한 신성적(神聖的)인 의미를 신화에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옛날 사람들의 우주관 자체가 현대인들의 과학적 지식과 비판력 앞에 무의미해 졌다고 해서 그것과 결합되었던 신화의 내용까지도 무의미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인간생활과 우주운행의 질서에는 과학적 합리적인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오묘한 신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초논리적 신비요소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똑똑한 현대인이 무식한 고대인보다 더 낫다고 할 수도 없다. 오히려 고대인들이 현대인들에 비하여 인간의 삶의 비밀에 대해 더 깊고 그럴듯한 상상력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 하는 대목들을 그들이 남긴 신화 가운데에서 발견할 때가 많다. 아마도 고대인들은 우리 현대인들보다 세속적인 번잡사에 덜 쫓기는 세상을 살았으므로 인하여 우주 속의 오묘한 인간 운명에 대해 상상해보는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더 많았으며,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훨씬 적었으므로 인하여 본능적인 직관력이 우리들 현대인보다 더 뛰어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령 인간의 죽음 저편에 무엇이 있는가를 그려봄에 있어서, 현대인은 실증적인 증거를 찾는 과학적인 사고 습관 때문에 거의 아무런 상상력도 발휘할 수 없지만, 과거 무지몽매했던 시대의

사람들은 오히려 죽음 다음의 세계에 관한 현란한 상상세계를 그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그 시대 사람들의 유물인 신화를 통하여 짐작할 수가 있다. 현대인들의 상상력으로는 죽는 순간 이후의 저승세계를 한 발자국 옮겨놓는 일도 그려보지 못함에 반하여, 옛날 무지몽매했던 사람들에게 가능했던 풍부하고도 경이로운 내세 모습의 묘사는 바로 우리 제주도신화의 <차사본풀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상이한 종교들 사이의 다툼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그마를 보지 말고 정신을 보아야 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령 사람을 사랑한다는 박애정신에 있어서 같은 취지의 가르침을 표방하면서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도그마는 종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불교 에서는 윤회전생(輪回轉生)의 믿음을 통하여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봄으로써 자비심이 나오지만, 기독교에서는, 십계명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거나, 창조주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형제라는 가르침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이 경우, 두 종교의 도그마는 다르지만, 결국 남을 사랑하자는 정신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종교에 있어서 도그마는 껍질이요, 정작 중요한 알맹이는 껍질 속의 정신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신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문제에서도 비슷한 말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니, 신화처럼 오래 전 옛날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이야기 속에서 사물에 대한 지식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은 부질없는 일이요, 표면상의 이야기에 담겨진 인간영혼의 영원한 문제야 말로 우리가 애써 찾아야 할 신화적 의미의 근원인 것이다. 신화에 있어서 지식은 걸쭉데기이고 영혼에 대한 관념이야말로 그 속에 담겨진 진짜 알맹이라고 할 수 있다. 고도의 과학주의 정신으로 무장된 현대인들이 한낱 귀신 이야기 같은 신화 가운데에서 뭔가 깊은 뜻을 발견하고 색다른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이야기 배후에 숨어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해야한다. 신화에 담긴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뜻밖에도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여 변함이 없는 인간성의 어떤 기본요소를 밝혀줄 수 있고, 신화에서 밝혀지는 옛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숨어있던 인간성의 본질 같은 것을 새롭게 인식하여 보다 풍부한 삶을 영위하는 계기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 II. 신화를 통해서 본 제주인의 영생욕구(永生欲求)

1997년에 나온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발간 『耽羅文化 18號』의 제주시민의

식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 주민들의 내세(來世) 신앙이 타지역 사람들에 비하여 유달리 강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제주인들은(58.6%) 동경이나(36.7%) 북경 사람들(18.0%)에 비하여 내세존재에 대하여 믿는 비율이 훨씬 높았고, 같은 나라 서울 사람들에(56.3%) 비해서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윤회사상이나 조상음덕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는 제주인의 이러한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즉, 불교적인 윤회전생을 믿는 비율에 있어서 북경인들의 경우(24.0%)가 제일 낮고 동경(36.6%)과 서울(39.6%) 사람들이 그 다음인데 제주인들의 경우가(51.3%) 단연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상음덕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도 이러한 차이는 비슷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어서, 북경인의 경우(32.9%)가 최하위이고 서울(56.3%)과 동경(58.2%) 사람은 별 차이가 없음에 비하여 제주인들의 경우(68.8%)는 단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sup>

조상숭배의 유교윤리는 원래 중국에서 유래한 것인데도 오늘날 조상들의 제사를 모시고 그들의 음덕을 믿는 비율에 있어서 북경인들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제주인들에게 내세신앙이나 윤회사상이 강하고 자손들에게 미치는 조상의 음덕을 믿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은 제주도에 신화가 풍부하게 전해져 온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제주도에 다른 지역에 비해 풍부한 신화가 전승된 연유는 무엇인가. 이는 매우 구명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 지역에 현세중심사상인 유교사상의 강도가 비교적 약했다는 사실과 연관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상 현세적 합리주의인 유교사상은 신비주의적인 무속신앙에 대해 강력한 저지역화를 담당하였으므로, 유교사상의 도입이 육지부에 비해 미진했던 제주도에겐 무속신앙에 기초한 무속신화가 비교적 덜 훼손되어 전승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제주도에 전래된 유교적인 조상숭배사상의 양상도 제주인의 내세신앙 성향과 관련하여 흥미를 끈다. 제주인들은 육지인들에 비하여 살아있는 조상들에 대한 숭배보다는 죽은 조상들에 대한 숭배에 더 열성적인 데가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풍속상 노인들에게도 자립정신이 강하여 운신이 아주 불가능할 때까지는 자식들에게 신세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제주인들은 조상이 타계한 다음에 제사 명절 모시는

1) 김항원 외,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시대 제주시민 의식의 실태와 과제 (제주, 서울, 동경, 북경 시민의식 비교연구)" 『耽羅文化 18號』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7), pp. 458-59.

일이나 선대의 분묘에 벌초하는 일을 중시하는 면에서는 육지인들에 비하여 정성이 대단하다. 제주인들간에는 아직도 고인에 대한 서상제사(小祥祭祀)를 모시는 가정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러한 풍습은 육지 사람들에게는 오래전에 없어진 것이다. 자식으로서의 극진한 효성을 타계한 다음의 조상들에게도 보인다는 것은 인간의 영생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는 징표이고, 죽은 조상을 잘 위해야만 그 조상들의 가호를 받고 자손들이 번창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죽은 다음에 영생하는 인간영혼에 대한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제주인들에게 신화가 풍부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제주도신화에 영생관련의 화소(話素)가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제주인의 영생신앙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신화에서 현세 인간들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신비스러운 힘은, 서천꽃밭이라는 이승도 저승도 아닌 제3세계에 있는데, 이곳에서 키워지는 운명의 꽃들 가운데 환생꽃은 제주신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재생의 모티프가 되고 있다. 제주신화 중의 〈이공 본풀이〉는 서천꽃밭 꽃감관에 대한 이야기로서 제주도 전래의 큰굿에서 낭송되는 열두 개 본풀이중에 하나가 사라도령의 꽃감관 봉직을 둘러싼 3인 가족의 수난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만큼 제주신화 가운데에서 재생모티프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본풀이에서, 꽃감관으로 간택된 남편과 헤어진 후 원강암 부인이 남의 집 종살이하면서 모진 설움을 당하고, 이들의 아들인 활락궁이가 꽃감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멀고도 험한 길을 찾아가고 마침내 아버지가 따주는 환생꽃의 공덕으로 어머니 원강암 부인을 살려내는 내력은 한번 죽어간 인간을 환생시키는 기적에 대한 제주인들의 가너린 꿈을 보여주는 것 같다.

삶과 죽음의 신비를 피고 지는 꽃의 비유로 풀었던 제주신화의 환생 모티프는 비단 〈이공 본풀이〉 한 군데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차사 본풀이〉에서 버무왕의 세 아들은 사람으로서의 목숨을 잃은 후에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다. 이 본풀이에서, 버무왕의 일곱 아들중 끝으로 세 아들은 기구한 팔자를 면하기 위하여 동개남절[東觀音寺]에서 범당공양을 3년이나 쌓은 끝에 보고 싶은 부모님을 만나보러 가던 도중 광양땅을 지나면서 시장끼를 견디지 못하여 찾아든 집이 과양생 댁이었고, 이 집의 마음씨 고약한 부인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여 주천강 연화못에 던져지지만, 연못위에 떠있는 세 송이 꽃으로 재생하여 과양생 처의 손으로 그녀네 집안으로 들어갔다가 청동화룻불 속의 3색 구슬로 되고, 이윽고 탐욕많은 그녀의 입속으로 삼켜지게 된 이 구슬들은 그녀의 영특한 세 아들 모습으로 태어나 과거에 장원급제하고서 비명에 죽음을 당하지만, 이 모든 기구한

운명을 거침으로써 버무왕의 죽었던 세 아들은 새롭게 환생하는 기연을 얻게 된다. 이밖에, <세경 본풀이>에서 자청비가 죽은 남편을 살리는 데에 쓴 환생꽃도 서천꽃밭에서 따간 영험스러운 꽃이다. 창세신화에 해당되는 <천지왕 본풀이>에서 대별왕 소별왕 형제가 이승의 관할권을 놓고 다툰 때 판가름 방법은 꽃가꾸기 시합이다.

### Ⅲ. 제주신화에 나타난 평화 모티프와 자연경배 정신

근자에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선언하여 동북아 지역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전략적 방안이 정치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창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 독특한 위치가 지니는 지정학적 의의와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혹독한 수난을 치른 제주 역사가 그런 제창자들의 논리적 근거로 제시되고 있음을 본다. 필자는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될 수 있는 정당성을 제주신화에 나타난 평화적 공존의 원리가운데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제주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특색의 하나는, 지배권력의 창출이 매우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립적인 신화 주인공들간의 관계도 매우 화평적이라는 점인데, 제주적인 문화특성의 요소들을 찾는 작업이 활발한 요즘 이 점은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아진다.

우선 제주도의 창세신화에 해당되는 <천지왕 본풀이>를 살펴보면, 우주의 지배자인 천지왕은 처음부터 자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지배자의 자리를 두고 다투는 투쟁극이 일어날 소지가 원천적으로 없고, 천지왕의 두 아들 대별왕과 소별왕이 벌이는 인간세계 지배권 다툼은 수수께끼 맞추기나 꽃가꾸기 시합이라는 지극히 평화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 이같은 사상은, 서양의 그리스신화에서 지배신으로서의 권력을 획득하는 방법이 아들신(神)에 의한 부신(父神)의 축출이고 그 축출방법 또한 무자비한 폭력수단에 의한 것이며, 가까이에 있는 일본신화에서도 지배신으로서의 권력획득을 위하여 무사들간에 목숨을 건 무자비한 결투를 벌이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여 우리의 관심을 끌 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sup>2)</sup>

지배권력의 평화적인 창출 방법은 무속신화 아닌 제주신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제주도 삼성신화의 삼을라(三乙那) 활쏘기 장면이 그 한 예이다. 이곳을 보면, 땅에서 솟아난 삼신인(三神人)은 일본국(또는 동해 碧浪國)에서 보낸 푸른 옷 입

2) 현용준, 『巫俗神話와 文獻神話』(서울:集文堂, 1992), pp.526-7.

은 세 처녀를 만난 후에 “나이 차례에 따라 나누어 장가들고, 물이 좋고 땅이 기름진 곳으로 나아가 활을 쏘아 거처할 땅을 점치었다(以歲次分娶之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sup>3)</sup>고 되어 있는데, 화살이 경쟁상대에게 향하도록 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가질 땅을 향하도록 쏘는 것은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지극히 평화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제주도 신화에서 지배권력의 승계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예는 설문대할망 이야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주의 지배권력이 선대의 죽음을 계기로 후대에게로 승계되는 이치는 불가피한 것이나, 제주섬의 창조자인 설문대할망에게서 그 아들들에게로 지배권력이 승계되는 것은, 그리스신화에서처럼 아들신에 의한 폭력적 반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설문대할망이 500명이나 되는 아들들을 먹여 살릴 죽을 쑤다가 가마솥 전에 발을 헛디딘 결과로 뜨거운 죽술에 빠져 죽음으로써 아들들이 유난히 맛있는 죽을 먹게 되었다는 내용 가운데에는 폭력수단의 사용도 없고 상호간의 배척이나 미움도 없으며, 오직 선대의 희생에 의한 후대의 양육이라는 평화적인 승계원리가 돋보일 뿐이다.

제주신화에 나타나는 평화적 공존의 원리는 대립하는 신화 주인공들 사이의 상호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인간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은 신화 속에서 다양한 성격의 주인공으로 나타나는데, 이들 사이의 관계가 투쟁적인 것이 그리스신화이고 평화적인 것이 제주신화임은 근래의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인간성 가운데에는 합리적 질서를 추구하는 요소와 비합리적 신비적 도취를 동경하는 요소가 공존하고 이러한 이질적 요소들의 대립은 제주신화에서는 서당에서 공부하는 초공신 삼형제들(무당신의 원조)의 수난으로 나타나고, 그리스신화에서는 아폴로신과 디오니수스신의 대립으로 나타나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이질적인 요소들간에도 상대방의 존재의의가 존중되는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반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두 요소들이 본질적으로 상호배척적이어서 평화로운 공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제주신화에서 엑스타시신(ecstasy神)인 초공신으로 간택되는 주자선생의 세 쌍둥이는 중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법당 선비들에게서 모진 학대를 받으면서도 근면 성실한 생활태도와 우수한 사회적응력을 보여줌에 반하여, 그리스신화에서 엑스타시신으로 간택되는 디오니수스는 수많은 주변 인물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무수한 살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와있다.

제주신화와 그리스신화 사이에 존재하는 공존원리의 상이함은 부부간 애정의 양

3) 현용준, 『濟州島 神話』(서울:瑞文堂, 1977), pp.23-4.

상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니, 전자의 경우에는 한 남자의 정실부인과 첩 사이가 별 충돌 없이 화해하고 있음에 반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끝없는 반목과 살상이 일어난다. 제주신화의 <문전 본풀이>에서는 남선비의 아내 여산부인은 자기 남편이 노 일자대라는 첩을 집에 데려다가 같이 살자는 청원을 들어주고 있다. 또한, 송당 당 신화에서 소로소천국의 아들 케네깃한집은 용왕국 막내딸을 부인으로 맞아들였다가 그녀의 부정타는 행위를 탓하여 마라도로 귀양보내고 첩을 얻지만, 이 첩은 나중에 본부인을 모셔다가 남편하고 셋이서 동거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그리스신화에서는 가정의 수호신격인 헤라는 자기 남편 제우스의 사랑을 받는 여성에 대해 가차없는 응징을 가하고 있음이 주의를 끈다.

제주신화의 평화적 공존의 원리는 인간과 신 사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주신화 속의 신들은 원래부터 인간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했으며, 그리스신화의 신들처럼 인간의 능력과 행복을 시기 질투하거나 인간능력의 유한함을 노리게 삼아 즐기는 일이 없다. 다만, 제주신화의 신들도 인간처럼 먹을 것이 필요하고 인간의 경배를 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러한 요구사항을 인간에게 알려져 용서하게 대접받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인간사회에 풍운조화나 복통과 같은 흉험(凶險)을 주지만, 이것도 인간으로부터 흡족한 치성을 받기까지만 행해진다. 신들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에도 이같은 화평적 관계가 나타나는데, 제주신화에서 인간은 신의 초인간적인 권능을 시기 질투하거나 신의 절대권력을 공포나 저주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스신화에서처럼 인간이 신의 권능에 도전하고 인간능력의 영역을 시험하거나 확대하는 모험을 벌이는 일이 없다. 죽음의 운명을 전하러온 저승차사를 마치 다정한 이웃처럼 만난다는 <명감 본풀이>의 사만이 이야기는, 공포와 전율의 대상으로 묘사되는 그리스신화의 죽음의 신 하데스 이야기나 죽음의 운명을 거역하기 위하여 하데스의 사자와 결투를 벌이는 시지푸스 이야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본래적인 자연질서를 무시하고 인간중심적인 생활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생태계와 인간사회 사이의 부조화와 마찰을 해소할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는 오늘날, 제주신화에 나타난 우주적인 화해원리는 현대문명의 미래적인 비전과 관련하여 새롭게 조명해야 할 연구주제라고 생각된다.

동양정신의 근본을 대립요소들간의 평화적인 공존으로 보고 서양정신의 근본을 끊임없는 투쟁이라고 볼 때에, 서양적인 투쟁 모티프는 그리스신화 가운데에 나타나 있고 동양적인 평화모티프는 우리 제주도의 신화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리스신화에서 인간이 만물을 무릅쓰고 신의 능력을 시험하며 이에 도전하고 신



의 비밀을 들춰내어 이를 이용하기를 즐긴다는 것은 곧 무한대의 자연세계 앞에서 겸허하지 못하고 대자연의 힘에 도전하는 서양인들의 투쟁정신을 보여준다고 해석되는 것이다. 그리스의 신들은 각자가 무한대의 자연력을 상징하고 있으므로(태양신은 아폴로이고 바다의 신은 포세이돈인 것처럼) 인간이 신에게 도전하는 것은 곧 자연에 대해 도전함을 의미한다. 타이탄神인 프로메테우스가 올림푸스神들만의 전유물인 불을 훔쳐 인간에게 선사하였음은 나중에 신들의 지배원리에 대한 인간 자신의 반항과 도전을 정당화해주었다. 그리스신화 가운데에서 신의 능력을 탐하고 이를 넘보는 사람은 시지푸스만이 아니다. 아라크네라는 리디아의 직조공은 직조술을 놓고 아테나 여신에게 도전하였다가 거미로 변신당하는 벌을 받았다. 리디아의 왕 탄탈루스는 올림푸스의 신들에게 가짜 요리를 대접하여 그들의 전지전능함을 시험하였다가 영원한 목마름이라는 벌을 받았고, 그의 딸 니오베는 레토 여신에게 자식 잘난 자랑을 하다가 바윗돌로 변신당했다.

우리가 제주의 무속신화 속에서 가르침 받을 만한 어떤 정신을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이같은 자연경배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신화가 만들어지던 시대에 사람들의 의식세계를 지배하던 무속신앙은 한 마디로 자연에 대한 외경사상인 것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면 자연의 웅대한 힘 앞에서 겸허해지는 인간의 마음이다. 제주신화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옛날 제주 사람들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자연현상들은 눈에 안 보이는 신비로운 힘의 구현이었고, 무한한 윤회과정에서 현세 인간의 과거 또는 미래의 운명을 암시해 줄 수 있는 오묘한 힘의 표출일 수 있었다. (원시적인 자연숭배사상에서는 자연현상 속에 현대인이 생각하는 인과법칙적 자연의 질서 이상의 신비스러운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것은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자연현상에 대해 초자연적인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다.) 무속신앙의 시대에 사람들은 땅위에 집을 짓거나 길을 낼 때에도 인간의 목적 이상의 보이지 않는 힘을 생각하였고, 나무 하나 풀 한 포기 뽑을 때에도 함부로 하지 않았다. 현대인들중에는 심방이나 찾아서 입신과 발복을 빌었던 옛날 사람들을 무지몽매했다고 비웃을 이들이 많겠지만, 자연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믿고서 자연환경을 마구 훼손하고 아름다웠던 지상세계를 썩어가는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오만방자한 현대인들보다 옛날의 무지한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욱 존경스럽고 인간다운 삶을 살았었다고 보아진다.

한림읍 명월리에 살았다는 명의(名醫) 월계 진좌수에 대한 설화에는, 진좌수가 밤길에서 만난 삼승할망신으로부터 <정의고을 백정네 집에 하루 백미 세 흡씩 타

고 태어나는 딸을 점지하러 간다》는 말을 듣고서 반상(班常)을 무시하고 그 백정 집 딸에게 청혼을 들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기가 태어나는 일을 출산신의 특별한 시혜로 생각하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자식 복을 빌기 위하여 삼승할망신에게 치성드리는 일은 아주 자연스러운 가정행사였다. 이 경우 출산신 삼승할망에게 치성을 드려야 자식 복을 받는다는 부분은 옛날 사람들의 지식의 한계를 드러내지만, 자식 갖는 일이 인간의 힘을 벗어난 신비한 자연의 질서에 속한다는 점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옛날과 지금이 다른 점이 있다면, 옛날 사람들은 아기 태어나는 일을 자연질서의 신비로 생각하고 그 자연질서에 승복하였음에 반하여 요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신비감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삼승할망 신화 스토리가 형성되었던 배후의 기본정신은, 아기가 태어나는 일은 인간이 아닌 어떤 절대적 힘의 배려에 의해서 가능하고, 인간은 이러한 불가사의한 힘에 대해 무조건 경배하고 복종한다는 마음자세라고 할 수 있다. 생명탄생의 인과법칙적 원리를 속속들이 알아버린 오늘날, 사람들은 자식이 태어나도 머리를 조아려 감사할 줄을 모르고, 순리대로 태어나지 않는 아이를 인간의 힘으로 태어나게 만들려는 온갖 무리수를 쓰고 있다. 생명탄생은 은혜로운 사건이 아니라 당연한 자연현상이요 권리처럼 되어버림으로써 이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조차 희미해져 버리는 것 같은 오늘날의 세태는 옛날보다 오히려 따듯한 인간미가 많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다음에는 옛날 사람들이 불공평한 인간의 수명을 이른바 팔자(八字)로 받아들였던 방식과 관련된 제주신화 한 토막을 살펴보자. <차사본풀이>에 따르면, 천하장사 강님이 죽어서 염라대왕의 심부름꾼인 저승차사가 된 다음에, 인간에게 정해진 (여자 칠십, 남자 팔십이라는) 공평한 수명이 적힌 적패지(赤牌旨)를 등에 지고 가서 전하고 오라는 분부를 받고 저승에서 이승으로 오는 머나먼 길을 오던 중 하도 다리가 아파서 길을 쉬는데 까마귀 한 마리가 나타나서 자기가 대신 적패지를 전해주겠다고 하길래 그것을 까마귀 날개에 끼워 넣었지만, 이 까마귀 또한 머나먼 길을 오던 중 때마침 <말 죽은 밭>에서 사람들이 말잡는 것을 보고서는 거기에서 말피나 한 점 얻어먹어 보자고 나뭇가지에 내려 앉았다가 인간의 수명이 적힌 적패지를 잃어버리게 된 결과, 이승에 와서 아무렇게나 까옥까옥 울어대면서 죽을 때를 전하는 바람에 아이 어른 순서도 없고 부모 자식 순서도 깨지는 엉뚱한 나이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우리 제주도의 언어표현에, 중요한 일 도중에 공연히 딴 곳에 정신팔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 <말 죽은 밭에 들린다>는 말이 있는 것은 <차사본풀이>의 이같은 대목에서 나온 것이다.)"

일생중 최대의 관심사이면서 전혀 예측불가능하고 불가항력적인 인간수명에 대하여, 그것은 원래 불공평하게 정해졌다는 체념을 해학적으로 극화시킴으로써 심정적인 위안을 얻었던 옛날 사람들의 지혜를 무지의 소치라고 비웃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인간성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IV. 제주신화에 나타난 제주역사의 실상들

제주도신화는 그 스토리 자체가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고, 더구나 거기에 담겨져있는 문화사적인 의미를 현대인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는 일은 아직 매우 일천한 단계에 있다. 그러나, 향토문화재의 보존과 그 현대적인 재해석 및 재구성의 필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요즘 제주신화에 대한 논의도 점차 활발해져 가고 있음을 본다. 제주신화의 연구는 제주도 민속의 역사적 구명이나 바람직한 제주정신의 정립작업에 의미있는 시사를 던져줄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제주신화 가운데에는 제주인들의 역사가 용해되어 있고, 제주인들의 원형적인 사고방식과 우주해석의 핵심요소가 들어있다. 신화를 흔히 민족적인 집단무의식의 표현이라고 하지 않는가. 제주도신화의 대중을 이루는 것은 무속 제의의 본풀이인 무속신화인데, 이 무속신화의 주요 내용인 무속신들의 신격(神格)획득 및 좌정(坐定)의 경위설명, 신들의 직능풀이, 무속신앙민들인 단골 지정과 신에 대한 기복사설(祈福辭說) 등은 마치 심청전이나 별주부전 같은 고대소설처럼 잘못된 지식에 입각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우주와 인생을 해석하는 기본관념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신화속에 담긴 기본적인 우주관과 인생관은 주로 상징적인 차원에서 해석해야 하는 것이지만, 비록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우리는 신화내용에서부터 역사적인 사실을 추론해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신화는 물론 그 자체로서는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 아니지만, 신화의 구성이 허공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과거 어느 시대에 구체적으로 살았던 인간들의 삶에서부터 형성되어진 이상 그들의 한때의 삶의 역사가 투영되어 있을 것은 뻔한 이치이다. 더구나 문자에 의한 역사기록이 없는 오래전 시대의 실상에 대해서는 신화가 매우 값진 역사기록적 가치를 가질 수가 있다.

4) 현용준, 『濟州島 神話』, p.136-38.

제주신화는 그 대부분이 가정의 번영을 신에게 기원하는 종교행사인 굿판의 본풀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족들의 삶과 죽음에 관련된 일들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간의 출산을 담당하는 삼승할망신은 큰굿에서 칭해지는 일반신들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은 치성을 바치는 위풍당당한 신이었다. 제주신화에서 지역수호에 관계없이 세상일 전반을 관장하는 일반신들 이야기 가운데에는 후사가 없어 자식을 점지해 달라고 극진하게 치성드린 결과로 태어난 인간이 영특하게 자라나서 신으로 격상된다는 내용이 여러번 나오고 있고, 지역수호신들의 이야기인 본향당신화(本鄉堂神話)의 상당한 분량이 신들의 출생과 결혼에 관한 이야기들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제주의 무속신화에 나타난 신들의 결혼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옛날 제주인들의 역사와 생활양상을 추론하는 적지 않은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제주신화에 나타난 신들의 결혼방식을 통하여 제주인들의 옛날 결혼풍습을 살피고 있어서 주의를 끄는 문제는, 우선 남자신이 자신의 본거지를 떠나서 혼인한 후에는 여자신의 거주지역에서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예가 많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남자쪽이 여자쪽 거주지를 영구적인 정착지로 삼는 모처혼적(母處婚的) 경우에는 세화리 본향당 신화를 들 수 있다. 이 신화에서는 서울 남산에서 솟아난 금상님이, 제주에 먼저 입도하여 정착해 있던 백주또를 찾아와 그녀의 외할아버지인 천자또의 승낙을 얻어 혼인한 후에는 그녀와 같은 지역에 정주해 버린다. 다음으로 남자쪽이 여자쪽 거주지에 일시적으로 거주했다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시적 모처혼(一時的 母處婚)의 경우에는 제주도 본향당 신화의 원조격인 송당계 신화인데, 여기에서 남자신 소로소천국과 여자신 백주또의 막내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불경죄 때문에 동해용왕국으로 휩쓸려 가서 용왕의 막내딸과 혼인한 후 한 동안 동거하다가 다시 자기 고향 제주도로 돌아오고 있다. 이러한 혼인방식이 제주도의 역사적 사실 구명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보통 모처혼적 방식은 남방계 민족의 풍속이고 부처혼적 방식은 북방계 민족의 풍속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사회에서 통용되는 부처혼적(父處婚的) 가족제도의 시원지가 북방계 민족이라면, 제주신화에 나오는 혼인제도 혼합상이 암시해 주는 것은, <모처혼-일시적 모처혼-부처혼>의 변천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곧 남방계에서 오던 영향이 북방계의 영향으로 점차 변했음을 의미한다.<sup>5)</sup>

다음으로 흥미를 끄는 문제는, 제주신화에서 벌어지는 신들간의 이혼 또는 별거

5) 현용준,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p.178.

사건들이 제주인들의 옛날 풍속을 어느 정도 말해주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 남자신이 여자신을 쫓아내는 경우가 여자신이 남자신을 쫓아내는 경우보다 많은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습속을 반영한다고 보겠으나, 여자신이 축출될 때의 사유와 남자신이 축출될 때의 사유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신화에서 여자신이 쫓겨날 때의 사유는 기이하게도 <돼지 발자국에 고인 물을 빨아먹다가 돼지털이 콧구멍으로 들어간> 일 때문으로 되어있다. 부인신을 소박놓으면서 남편신이 내세우는 이같은 이유는, 토산리(兎山里) 웃당 수호신 보름웃도[바라못도]가 그의 부인인 신중도를 마라도로 귀양보낼 때, 송당리의 본향신 부부인 금백조와 소로소천국의 아홉째 아들 도리산신도가 교래리 수호신인 고씨할망과 결혼했다가 쫓아낼 때, 그리고 월정리 수호신 신산국[신상국]이 그의 부인 서당할망에게 별거를 명할 때에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용담동 수호신 상사대왕이 그의 작은 부인 정절상군농을 궁당 바깥쪽으로 쫓아내어 좌정시킨 것도, 이 부인이 임신중에 돼지고기 먹고 싶은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돼지털을 하나 뽑아 그을려서 코에 갖다 대어봤다>는 이유 때문이다.<sup>6)</sup>

돼지털 모티프는 한라산 남쪽 당신화에서는 돼지간으로 약간 변형되어 나타난다. 한라산신 계열인 조노기보름웃도가 남원읍 예촌 본향당에 좌정하고 싶었으나 기존의 한라산신에게 바둑게임에 패하여 남쪽 바닷가로 내려가 보목리 수호신이 되는데, 그의 처인 신중부인에게서 <소변을 보러 갔다가 돼지고기가 먹고 싶어서 돼지간을 내어 먹었더니 '먹은 간 쓴 간' 정신이 없이 지린내가 납디다>라는 말을 듣고서는 부정(不貞)하다는 이유로 부인을 토평리 막동골로 보내버린다.<sup>7)</sup>

위의 스토리들에서 공통되는 점은, 돼지털이나 돼지간에서 나는 종경내[지린내]가 여자의 정신을 몽롱하게 만든다는 것과, 남편신은 부인에게서 종경내의 기미를 인지하는 순간 그것을 그녀의 부정한 행동의 증거로 보고 부부간에 헤어질 것을 명한 다음에는 대개의 경우 작은 부인을 취한다는 것이다. 돼지에게서 강하게 느껴지는 동물적인 성분능을 인간의 부도덕 행위에 빗대어 말하는 것은 고도의 문학적 상징기법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돼지털의 형상이나 색깔은 섹스 이미지를 짙게 풍기며, 먹을 때의 맛이 썼지만 여자를 정신없게 만들었다는 돼지간의 이미지도 간음행위를 암시하기에 족하다. 제주신화의 남신들이 부정 혐의를 빌미로 하여 큰부인을 몰아내고 첩과 동거하거나 자신의 전권행사를 즐긴다는 내용은, 제주인

6) 현용준, 『濟州島 神話』, p.225.

7) 고대경, 『神들의 고향』(서울:중명, 1997), p.277.

의 역사에 실재했던 남존여비 풍속의 투영이라고 보아진다.

남편신이 부인신에게서 버림받거나 처가에서 거부당하는 사례는 그리 많진 않지만, 그 이유는 한결같이 남편의 과다한 식욕 때문이다. 송당리에 좌정했던 소로소천국은 제주출신으로서 강남천자국에서 온 자기 부인 금백주의 권에 따라 농사일을 시작하여 살던 어느 날, 밭갈이 일로 허기진 배를 채우느라 자기 밭 갈던 소 한 마리 잡아 먹은 것으로는 부족하여 이웃 밭에 있던 소까지 잡아먹었다는 이유로 부인에게서 살림분산을 강요당하여 옷송당을 뺏기고 알송당 고부니마을에 좌정하게 된다. 송당리 분향신 소로소천국의 여섯째 아들 궤넉깃한집도 부친에 대한 괴핍죄 때문에 무쇠석갑에 갇힌 채 바닷속을 떠밀려 가다가 용왕국에 당도하여 용왕국 대왕 셋째 딸과 혼인하나 식욕이 과다하여 소와 돼지를 많이 축낸다는 이유로 부인과 함께 물바깥으로 쫓겨난다. 이 화소(話素)는 소로소천국의 작은 아들이면서 토산리 첫앞빌레에 좌정했던 보름웃도가 어릴 때 바닷물에 띄워져 용왕국 작은 딸과 혼인할 때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세화리 분향당신화에서 금상님이 천자또의 외손자 백주또의 배필이 되고자 청할 때에도, <술도 장군, 떡도 장군, 밥도 장군, 돼지도 전마리로> 먹는다는 말로 호기를 부리다가 거부를 당하는데 백주또의 간청으로 과람한 식성을 바꾸기로 맹세하고 나서 소주로 목욕하고 청감주로 양치질 한 다음에 겨우 부부인연을 맺게 된다.”

남자의 과다한 식욕이 이처럼 큰 경계의 대상이 되었음은 어인 일일까. 옛날 제주 사람들의 가난한 생활이 밥과 고기를 많이 먹는 남자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는 것인가. 많이 먹는 남자를 힘세고 믿음직스럽게 보아줄 수는 없었는지, 제주인들의 옛날 풍습과 관련하여 흥미있는 일이 아닐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제주의 지역수호신 설화에서 우리는 하나의 남성신이 자신의 배우자의 거취를 자유로 결정하고 첩까지 거느리는 일부다처제적(一夫多妻制的)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제주사회의 과거 풍속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일부다처의 풍속은 남성의 권능이 여성보다 더 강력함을 보여주는 것일 터이나, 제주의 일반신 설화에서는 지역수호신 설화와는 대조적으로 여성신이 남성신들보다 더 똑똑하고 강인한 개성을 보여주고 있음이 주의를 끈다.

지역신 설화로서는 송당계(松堂系) 신화에서 소로소천국이 강남천자국 출신인 자기 부인 백주또로부터 남의 소를 잡아먹었다는 이유로 살림 분산을 강요당한 일이 여성우월적인 부부관계를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사례이나, 일반신 설화에서는

8) 현용준, 『濟州島 神話』, pp.267-68.

여성우월적인 관계가 거의 보편적인 것 같다. 일반신들로서 부부간의 우열관계를 실감나게 보여주는 경우는, <문전본풀이> 중의 남선비 부부, <세경본풀이> 중의 문도령-자청비 부부, <차사본풀이> 중의 강님 부부, <이공본풀이> 중의 사라도령-원강암(원앙부인) 부부 등인데 한결같이 부인신이 남편신보다 지능과 담력과 끈기에 있어서 뛰어난이 확인된다.

<문전본풀이>의 여산부인은 일곱 형제 키우는 가난한 살림을 벗어나기 위해 남편인 남선비에게 쌀장사 시작을 시킬 정도로 생업경영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남선비는 배를 타고 쌀 사러 갔던 바다 건너 오동나라에서 간악한 여자 귀일의 딸에게 사기당하여 장사 밑천과 노자까지 날려버리고 집에 찾아올 엄두도 못내는 어리석은 남편임에 비해, 여산부인은 행방불명된 남편을 찾아서 단신으로 이국땅으로 떠나는 담대함을 보여준다. 남선비는, 귀일 딸이 여산부인을 주천강 연못에 빠뜨려 죽게 한 후 부인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나타난 것도 모르고 그녀를 데리고 집에 돌아와 살림을 시작할 정도로 아둔한 남자로서, 부인이 가정내의 화목과 복락을 관장하는 조왕신[부역신]으로 좌정함에 반하여, 부인보다 한결 격이 낮은 정살귀신이 되는 데에 그친다.

<차사본풀이>에서 인간차사로 간택받은 강님이 염라대왕을 잡아오는 장거(壯舉)는 그의 부인의 치밀하고 지략적인 대비책이 없었다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버무왕 3형제의 환생인간인 과양생의 3형제가 한 날 한 시에 비명횡사한 괴이한 운수를 풀어달라는 과양생 처의 신원 처결을 김치 원님에게서 명령받은 강님은 열여덟 기생초침과의 의논이 허사임에 낙담하다가 평소애 소박주던 부인에게 도움을 청한다. 강님은 독심과 완력에 있어서는 염라대왕을 붙잡을 만큼 비범하지만, 어렵고 먼 저승길을 무사히 찾아내어 목적지에 이르는 것은 그의 부인이 조왕신과 문전신의 가호를 얻어냄으로써 이루어진다. <이공 본풀이>에 있어서도, 남편 사라도령이 서천꽃밭 꽃감관으로 불려간 동안에 원강암 부인이, 급한 김에 아픈 몸을 위탁했던 악독한 주인 재인장재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자기 아들 할락궁이를 키워내는 용기와 지혜는 영특한 제주 여인의 모습 그대로이다.

<세경본풀이>에서 여성신 자청비가 남성신 문도령보다 우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들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들 두 주인공 사이의 사랑은 시작에서부터 결말에 이르기까지 자청비의 뛰어난 수완에 의해 그 결정적인 성공의 열쇠를 얻고 있다. 자청비는, 연못가 빨랫터에서 만난 문도령과 함께 글공부 가기 위해 있지도 않은 자기 남동생 모습으로 껌쪽같이 변장하고 나오는 기민성을 보이고 있다. 자청비는 문도령과 함께 거무선생택에서 글공부하는 동안 문도령보다 성적이

우수하였으며, 그 글공부 기간중 문도령은 자청비의 신원에 대한 의심을 풀어보기 위하여 <오줌 갈기기> 게임 등 몇 가지 피를 써보았으나 오히려 자청비의 고단수 대응에 쉽게 넘어가고 있다. 자청비는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정의 욕망 또한 강한 여성임을 보여준다. 그녀는 3년간의 글공부를 마친 문도령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연 3년 눈 속여 오던 사랑>의 회포를 푸는 당찬 혈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세경본풀이> 스토리 중에 문도령은 자청비와 헤어져 있는 동안 두 번이나 그녀와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딴 여자와의 사랑을 즐기지만, 그 때마다 자청비가 당당하게 나타나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사랑의 권리를 되찾는다. 자청비는 대인관계와 처세술에 있어서도 뛰어난 수완을 보여준다. 그녀는 하늘나라 문도령과 헤어져 있는 동안, 자기에게 흑심을 품은 정수남의 수작을 재치있게 받아넘겨 능욕을 피하는 영특함을 보여주며, 문도령이 서수왕 딸에게 혼인 약속된 것을 물리치게 하고 자기 애인의 부신(父神) 문선왕에게서 며느리로 간택받는 테스트에 합격하고 마는 명민성을 보여주고 있고, 문도령이 거주하는 하늘나라에 난리가 났을 때 갑옷 입고 이를 평정하는 용감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자청비 설화의 마지막 대목은 이러한 여성우월적 모티프를 완결시킨다고 보아진다. 자청비는 하늘나라 난리를 평정한 데 대한 상훈으로 내려주는 높은 벼슬을 마다하고 자기 고향 제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들의 생업을 도와주는 농경신으로 좌정할 것을 자청하고 있는 것이다. 하늘나라 문도령한테 시집을 갔지만 남편집에 들어가 살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남편을 데려와서 사는 자청비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제주도 여성의 억척스러운 강인함을 엿볼 수 있다.

제주 여성의 강인함을 반영하는 제주신화의 내용에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비록 여성의 능력이 남성에 비하여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으나, 정작 이들이 차지하는 사회적인 위치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점이다. 농경신 이야기인 <세경신 본풀이>에서 자청비는 그녀의 탁월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중세경으로 좌정하고 상세경의 지위는 그녀의 남편인 문도령에게로 돌아간다. <이공본풀이>에서 인간의 죽음과 환생을 결정하는 서천꽃밭 꽃감관의 지위는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사라도령의 것이지, 지혜와 용기가 가당한 원강암 부인의 것이 아니다. <차사 본풀이>에서 저승차사 역할이 강님처럼 담력과 완력이 출중한 인물에게로 돌아간 것은 자연스럽다 하겠으나 지략과 절개가 가당한 그의 아내에게 아무런 직분이 맡겨지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문전본풀이>에서만은 똑똑하고 인자한 부인이 조왕신으로 좌정하고, 못난이 같은 남편은 정살[정낭]귀신이 됨으로써 부인이 남편보다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어



머니처럼 똑똑한 작은 아들이 어머니 조왕신보다 우월한 문전신으로 좌정함으로써 남성우위의 원칙은 깨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 V. 제주신화에 대한 예술적 재구성의 가능성

신화를 종교적인 의미 관련에서부터 분리시켜서 보면 그것은 어떤 독특한 상징 체계에 의한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으로 해석될 수가 있고, 신화를 구성하는 상징 체계에는 곧 그 민족의 원형적인 문화양식이 용해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오랜 옛날의 신화를 현대인들의 손으로 재구성하거나 신화중의 일부를 소재로 하여 새로운 예술품을 창작하는 작업은 그 자체가 문화창조적인 의미에서 매우 가치있는 일이며, 요즘 크게 각광받고 있는 관광자원 개발이라는 실리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는 매우 유익한 일이기도 하다. 신화 속에 그 민족이나 지역주민의 원형적인 문화양식이 담겨 있다 할 때, 전시대 문화양식의 결정체로서의 신화내용을 모태로 하여 현대사회라는 달라진 환경에 어울리는 새로운 창작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일이고, 이렇게 해서 생산된 예술작품은 관광업중에서도 그 부가가치가 높다는 문화관광 사업의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문화공동체마다 제각기 고유한 신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집단의 가장 특색있는 문화요소를 신화내용에서 찾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몇 년전에 3주간에 걸친 그리스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이 나라에 전래되는 풍부한 신화를 관광관련 사업에 이용하는 방법은 참으로 놀랄 만하였다. 그리스신화에 관련된 그 굉장한 유적지들의 입장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았지만, 이나라의 관광사업치고 그리스신화에 신세지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대신화의 내용은 다방면에 침투해 있었다. 책을 통해서 익히 들던 그 수많은 신화의 주인공들의 이름이, 항구에 정박한 선박 이름에서부터 시내의 호텔을 비롯한 각종 상호 이름, 거리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었고, 입상(立像)에서부터 좌상(坐像), 두상(頭像)에 이르는 여러 형태의 신들 조각품을 파는 가게가 부지기수였고, 각종 의류나 도자기나 그림엽서의 도안에도 다양각색의 신들의 모형이 쓰여지고 있었다. 워낙 잘 알려진 그리스신화의 주인공들이라서 그 이름만 가지고도 관광객들의 흥미를 끌기에 족하다 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기발하고 희한한 방법으로 신들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었다. 필자는 지금, 그 짧은 여행 기간중에 열린 눈에 띄었던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리스신화를 소재로 하여

제작된 음악, 미술, 무용, 드라마들은 또 얼마나 많을 것이며, 그 많은 신화 주인공들의 이미지를 이용하는 축제행사 등 이벤트는 얼마나 많을 것인가 싶었다.

우리의 경우 제주도 전래의 풍부한 신화는 현대적인 예술작품의 창작이나 문화 관광사업의 자원개발에서 얼마나 유효하게 이용되고 있는가. 제주도의 역사와 관련된 우리 특유의 유형문화재인 돌하르방을 이용하여 제주 이미지를 창출하는 노력의 성과는 그런대로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제주신화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은 아직 매우 일천한 단계에 있다. 필자는 제주도립예술단의 문예회관 정기공연을 몇 번 구경가 본 적이 있고, 1998년도 세계섬문화축제에서 있었던 도립예술단의 공연도 유심히 보았는데, 이 방면 전문가들의 노력에 비하여 그 성과는 아직 미진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필자가 관람한 것들 중에서는 2,3년 전에 문예회관에서 공연되었던 <무속악의 어울림, 자청비전>이 그런대로 어떤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쾌작이라고 생각되었다. 이 작품은, 그 우람하고 환상적인 무대장치부터가 하늘나라와 지상세계를 오가면서 벌어지는 신화의 스토리와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었고, 책을 읽으면서는 맛볼 수 없었던 박진감 같은 것이 느껴지는 분위기 연출이었다고 기억된다. 자청비 이야기는 원래부터 상징적인 의미가 풍부하고 재미있는 스토리이지만, 거기에 담긴 신화적인 의미와 재미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요즘 사람이 보아서도 유쾌해지는 장면이나 대사의 재구성을 잘 구상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연기자들이 입은 의상과 그들이 쓰는 방언에서도 제주도 특유의 토속적인 맛을 풍기게 했다.

여기에 비하면, 1998년 가을의 도립예술단 제17회 공연인 <서천꽃밭>은 실망을 금치 못하였다. 이것은 최초의 유료공연이라고 했는데, 입장료를 받고 하는 공연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나아져야 될 텐데 왜 그렇지 못했는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대사가 없이 무용만 보여주어서 무대위의 진행상황이 제주신화의 어느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가 더욱 어려웠고 공연이 다 끝났을 때엔 나의 예술적인 감식안에 대한 열등감으로 머릿속이 혼란스럽기만 하였다. 대사가 없으면 그 대신에 춤사위의 적절한 변화를 통하여 신화 스토리의 전개를 암시해 주어야 할 게 아닌가. 무대장치의 활용도 극히 빈약하였고, 의상이나 소품을 이용한 메시지 전달의 노력도 극히 미미하였다. 신화 내용대로라면 무대장치도 몇번 바뀌어야 하고 남녀 주인공 몇 사람의 연기는 표가 나와 할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남자 주인공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은 것은 무슨 때문일까. 활락궁이도 남자이고 그의 아버지 사라도령도 남자이지 않은가. 음악이나 의상이나 심지어는 무대장치조차도 제주도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것이 극히 미미하였다.

〈서천꽃밭〉의 신화적 메시지를 무용극으로 전달하는 것은 잘만 하면 매우 매력적인 볼거리가 될 것 같다. 인간의 운명을 꽃의 이미지로 형상화한다는 것, 이 얼마나 멋진 발상인가. 운명의 씨앗은 한 송이 꽃을 피우는 조화(造化)의 힘처럼 오묘하고 절대적인 어떤 곳에서 심어진다는 생각인 것이다. 꽃은 지상의 생명현상들 중에서 자연 조화의 아름다움의 완성이 아닌가. 인간운명을 꽃과도 같은 절대적 조화의 산물로 보았던 선인들의 절묘한 상상력은, 생사법칙에 대한 종교적인 달관이든 한맺힌 운명에의 체념이든, 현대적 지성의 날카로움으로도 범접하지 못할 탁월한 직관의 표출일 것 같다. 꽃들의 이름도 꽃 그 자체처럼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감각적이다. 웃음꽃, 환생꽃, 멸망꽃, 싸움꽃, 뺨오를 꽃, 살오를 꽃, 피오를 꽃, 오장육부 기를 꽃 - - -. 인간운명을 가름하는 이들 여러 가지 꽃들을 형상과 색채로 구별해서 보여주는 무용이라면 〈서천꽃밭〉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을까. 운명의 사자(使者)와도 같은 이들 꽃의 등장에 의해 인간사의 향방이 결정되는 순간을 포착한 무용적(舞踊的) 형상화를 통하여 자연질서에 순응하는 제주 사람들의 장엄한 삶의 모습을 일깨워줄 수 있지 않을까.

〈서천꽃밭〉 무용작품의 안무자 약력을 보니 제주도와 관련이 없는 외지 인물인 것 같았다. 지난 여름 세계섬문화축제에서 보았던 제주도 설문대할망 신화를 소재로 한 테마쇼라는 작품도 서울 어느 예술단체에서 제작한 것이었다는 기억이 난다. 신화란 그 문화공동체의 역사적 삶의 반영인데 그 집단의 문화적 토양에 삶의 뿌리를 두지 않는 사람이 신화적 모티프의 토속적 주제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외지인들이 만든 이들 두 작품의 공통점은 주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너무 현대화된 기법을 썼다는 느낌이고, 거기에 붙여진 타이틀을 감추고 보거나 작품해설을 미리 보지 않거나 한다면 그것이 제주도적인 소재를 다룬 것인지조차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경하게 느껴졌다는 점이다. 제주도 사람들 중에 그 방면의 전문가가 없어서 외지인들에게 제주민속에 관련된 작품제작을 맡겼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서투른 정직함이 깔끔한 사이버보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는 1998년 여름부터 몇 달 동안 제주도의 어느 일간신문을 통하여 전개되었던 지상(紙上)논쟁 하나를 관심을 갖고 보았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테마공원 신들의 고향〉 건립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논쟁이었는데, 이 계획은 제주시청 관계 공무원들에 의해 추진되어 오다가 일부 종교집단의 반대에 부딪쳐서 보류되었다고 한다. 이 계획이 일단 보류되었다고는 하나,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발상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말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는 이런 식으로 제주신화의 주인공들을 테마공원 같은 곳에 집결시키는 일에 대해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종교신앙의 관점에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동안의 지상 논쟁과 다르다.

우선, 제주의 무속신들을 집단으로 등장시키는 테마공원 건립은 진정한 제주 무속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 계획을 추진하는 이들은 신들의 고향 테마공원 건립을 특정종교 보호책으로 안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다만 무속신앙이 이곳 주민들의 정서의 뿌리였으며 고단한 생활세계에 대한 위안과 희망을 심어준 옛날 풍속이었기 때문에 과거 민속의 보존차원에서 그리고 제주의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어 외지인들의 흥미를 끈다는 관광자원개발 차원에서 이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줄 안다. 필자의 입장에서는, 기독교나 불교처럼 현대적인 과학주의 정신과 공존 가능한 고등종교와 그렇지 못한 샤마니즘을 동격시하는 듯한 무속신화 테마공원 찬성론자들과 의견을 달리하고는 있지만, 단순한 민속전통의 보전이라는 관점 자체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민속문화 자체에 대한 이해부족 위에서 추진되는 선부른 테마공원 건립은 샤마니즘 민속의 참다운 의미를 곡해하게 만들기 쉽고 관광객 유치방법으로서도 효과적이 못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자연 앞에서 경건해지고 엄숙해지는 샤마니즘적 세계관을 구체적으로 실천했던 장소인 제주의 수많은 본향당(本鄕堂)들은 아무 곳이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큰 바위나 거목이나 하천 기슭 등 대자연의 위력과 신비함이 느껴지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신들의 고향> 찬성자들의 논리대로, 외래 관광객들의 관심대상이 제주 무속신들의 종교적 특징이 아니라 민속학적인 토속성에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필자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당(神堂)의 위치 자체가 민속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면, 다만 볼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원래대로의 신당의 위치를 무시하고 신들의 집결지를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일은 언센스라 아니할 수 없다. 만약에 요즘 사람들이 관광지 개발하는 식으로 땅바닥을 밀어붙여 시멘트 깔고 공장에서 나온 도료를 칠하고 기계로 깎은 철구조물과 돌덩이들을 갖다 세워서 테마공원 같은 것을 만든다고 할 때, 그런 곳에서 어떻게 대자연에 대한 경건함과 겸허함이라는 샤마니즘의 본질을 체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샤마니즘을 무지했던 과거 시대의 단순한 흔적이라고 보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속에서 어느 시대의 인간들에게서나 있었던 인간다운 삶에의 노력의 자취를 보려고 한다면, 그러한 원시신앙에 함축된 인간구체적인 의미를 왜곡 변형시키는 행위는 삼가해야 될 줄 안다.

관계자들이 정 그런 종류의 문화재보존이나 관광개발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욕이

있다면, 차라리 송당리나 토산리로 그 위치를 잡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제주시 <신들의 고향> 계획에서 부지 선정의 고려대상이었다는 사라봉 공원이나 명도암 지역이 무속신앙의 역사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묻고 싶은 것이다. 이에 비해서, 송당리는 제주도의 수많은 본향당신들의 종가(宗家)와도 같은 마을로서 글자 그대로 <신들의 고향>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곳이며, 다른 마을들에 비하여 무속신앙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자별한 곳이고, 토산리는 옛날부터 제주특유의 뱀신앙의 본거지일뿐만 아니라 끈질긴 토속신앙의 전래지역으로 알려진 곳이 아닌가. 역사성을 무시한 민속문화의 보존 정책이 얼마나 헛된 공상이며, 이런 공상에 기초하는 문화관광 사업이 얼마나 효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인지, 심사숙고할 것을 촉구하고 싶다.

이에 관련하여 생각나는 나의 체험담을 하나 덧붙이고자 한다. 나는 일찍부터 그리스 신화에 관심을 가져오던 차에 몇 년 전에는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 주관하는 그리스 학술탐방단에 함께 끼여서 이 나라의 풍부한 문화유적지를 둘러볼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리스의 신화와 관련된 관광객들의 불꺼리는 너무 많고 웅대하고 거창하다는 느낌이었고 이를 이용한 이 나라의 관광객 유치전략 또한 대단한 것이었다. 전체 국민소득의 3분의 1이 관광수입에 의존한다는 이 나라에서 원형의 모습을 완전히 무시하고 처음부터 관광객 유치차원의 아이디어와 현대적인 기술에 의해 재구성해 놓은 문화유적지가 없었던 것은, 그렇게 힘든 노력을 들이지 않고 원형대로 보여주기만 해도 엄청난 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대로 꾸며놓고 선전하면 많은 돈이 나올 것이 분명한 곳인데도 거의 방치하다시피 되어 있는 곳들이 있었던 것은 나를 의아하게 만들었다. 예컨대, 그리스 신화에서 지하세계와 죽음의 왕인 하데스가 지상세계로 나와서 미래의 자기 부인 페르세포네(Persephone)를 납치해 갔다는 그 유명한 땅굴을 물어 물어 찾아갔었는데 그곳을 지키는 경비원이나 돈을 받는 매표원도 없고 수천년이 지났을 고색창연한 모습들이 후세인들의 관광정책에서 별다른 신세를 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나는 이 나라 사람들의 이같은 무작위적(無作爲的) 배려의 지혜로움에 감사하였다. 만약에 그러한 인위적인 문화재보호책이나 관광개발사업이 이 신비의 유적지의 분위기를 어떻게든 바꾸어 놓았다면 내가 그곳에서 느꼈던 오묘하고 영험스러운 기분은 맛볼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우리의 행정당국자들이 의욕적으로 <신들의 고향> 테마공원을 만든다고 할 때 내가 그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인간에 의한 자연훼손이 불거지는 곳에서는 제주를 지켰던 옛날 신들을 불러온다기보다는 몰아낸다는 느낌이

들 것이라는 얘기이다.

다음으로 〈신들의 고향〉 입안자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제주 무속신들을 형상화시켜서 이들을 테마로 하는 공원을 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런 성격의 테마공원을 건립한다 하면, 제주 무속신앙의 주요 신들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할텐데 아직 그러한 시도를 하기에는 우리 지방의 샤마니즘 관련 연구가 너무 미진하다고 생각된다. 그리스의 경우를 예로 들 때에, 제우스를 비롯하여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주요신들의 모습은 얼굴 윤곽이나 표정, 체형의 특색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정본화(正本化)되 다시피된 모델이 통용되고 있었다. 제주도 무속신들에게서도 각각의 신들에 대한 구체적 형상화, 요즘 말로 캐릭터化(characterization)가 이루어져 있었다면 모르지만 현재의 상태로는 테마공원에 신들에 관한 조형물을 건립하는 것은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제주 신들의 캐릭터화 과제는 한 두 사람의 재주로 될 일도 아니요 한 두해의 짧은 세월에 이루어질 일도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의 지혜와 상상력이 모아져야 가능한 일이다. 가령, 삼승할망은 이러한 모습이라야 하고, 자청비는 이런 옷을 입고 이런 표정을 짓는 것이 어울릴 것이라는 식의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곧 그림이나 조각품의 어떤 양식을 확립해 갈 것이다. 지금과 같이 신들에 대한 캐릭터화 작업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어떤 유식한 제주무속 연구가가 창안한 제주신의 어떤 자태가 테마공원에 등장했다가 그것이 다수의 제주도민 또는 다수의 후세인들에게 어떤 식의 고정관념으로 작용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제주신화를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함에 있어서는 제주 신들의 캐릭터화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관광관련 업종들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는 관광기념품 사업이 우리 제주도에겐 그야말로 미개척 황무지 상태인데, 제주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제주 특유의 신화 전설 속의 주인공들은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제주관광의 의미를 배가시키는 관광기념품제작의 주요한 소재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는다. 또한, 요즘 많이 유행되는 제주도 일원의 축제행사도 제주신화 주인공들의 캐릭터화를 통하여 그 토속성과 지역특성을 배가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근대올림픽 경기의 모태인 고대그리스 올림픽 경기에서 챔피언들에게 씌어주었던 월계관의 월계수는, 남성미의 신 아폴로가 다프네라는 님프를 사랑하여 그녀의 뒤를 추적 질주하다가 그녀가 사라진 자리(즉 월계수가 솟아난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는 신화적 러브 스토리를 기념하여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로 택함을 받았다고 한다. 제주신화에 나오는 영특하고 맘씨고운 여신 자청비가 어떤

모습으로 캐릭터화된다면, 제주도민들의 축제열기가 담겨진 제주 감귤아가씨의 화관(花冠)에 제주도 여성의 표상으로서의 이 농경신의 형상을 새겨넣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그 소재를 발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만 이용한다면, 제주 신화를 소재로한 무용, 음악, 미술, 드라마 같은 예술작품이 제주도의 갖가지 축제 행사에서 그 독특한 의미표출과 분위기 연출에 일조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 Abstract

# Cheju Mythology Viewed in Terms of Modern Context

Young-Soo Yang

The best way to view mythology in a modern context is to view it in terms of symbolical meaning. The most important element found in Cheju mythology is its peace motif, and this point stands out in stark relief when it is compared with Greek mythology. In Cheju myths, Chonji-wang, the ruling god of the heaven, makes appearance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divine genealogy in his own right, and his two son-gods agree to designate the ruler of the present and next world by way of a peaceful contest of answering puzzles or growing flowers. On the other hand, each ruling god in Greek myths snatches control of the universe from his own father.

The principle of peaceful co-existence in Cheju mythology can also be seen in its ecstatic(i. e. shamanistic) gods, who are eager to adapt their extraordinary traits to the ordinary world which is generally represented by the Confucian tenets. In Greek mythology, the ecstatic element(represented by Dionysus) is quite defiant and quarrelsome to the sober and rational world(represented by Apollo).

One of the striking points in Cheju mythology is that female gods are described as brighter and smarter than male gods, and this point may well be interpreted as representing the actual history of Cheju Island. But female gods are brought to take inferior status in the social hierarchy, which also admittedly represents the actual past society on this island.

Mythology stands for fundamental elements of traditional culture in a country or district, and so we can turn some contents of our myths into meaningful materials for creative arts or literature,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cultural information intended for foreign visitors. But we must also be careful in order not to twist and deform the true essence of our forefathers' past folklore under the name of artistic transformation of former cultural



properties. It is our duty to reinterpret and revitalize the great store of mythological resources in our district on the principle of productive but reasonable reconstruction of our traditional culture.